

전주시 도서관 정책 '최우수'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 수상

'책의 도시'를 선포한 전주시의 창의적인 도서관 정책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서관도시 정책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시는 총 376개의 공모작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09개 사례를 놓고 7개 분야에서 경합이 이뤄진 이번 대회에서 '마음의 양식을 넘어 책이 삶이 되는 도서관도시 전주'라는 주제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도서관도시 정책은 민선7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핵심 정책 공약이자 책을 기반으로 한 인문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곳곳에 시립도서관, 여행자도서관, 예술전문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을 조성하고 딱딱한 기존 도서관들은 아이들이 책과 함께 놀면서 자유롭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변신시킨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책의 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포한 시는 전국 최고의 책의 도시를 목표로 삼아 ▲삶이 중심이



'책의 도시'를 선포한 전주시의 창의적인 도서관 정책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되는 도서관 ▲책을 쓰고 만드는 시인 ▲모두가 누리는 독서 문화 ▲가보고 싶은 책 여행도시 ▲책의 거리 등 5개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도서관은 지난해에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제15회 대한민국공인문화대상 대통령상(우주주 1216) ▲국무조정실의 2020 생활SOC아이디어 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국무총리상(우주주 1216)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도서배달서비스 우수기관(송천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의 '길 위의 인문학' 우수기관(서신도서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만나는 공동체의 거점이자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모험심을 키우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곳곳에 더욱 다양해진 특화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삶이 다시 책이 되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마련

전주시가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각종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코로나19 특별 방역 ▲민생경제 활성화 ▲시민안전 편의증진 ▲대시민 홍보 등 4개 분야, 13가지 추진과제를 골자로 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비상대응반과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종합경기장 내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연휴기간이더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노인요양시설과 문화·체육시설, 유통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에 대한 방역 특별점검에도 중점을 둔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 주요 거점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 방역수칙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자체 운영하는 실내시설인 봉안당과 봉안원을 추석 연휴기간 전면 폐쇄하고 대신 연휴 앞뒤로 하루 500명 한도 내에서 사전예약을 받아 운영기로 했다. 실의시설인 효자공원묘지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2차)를 포함해 가족당 8명, 성묘시간 30분, 시간대별 1000명으로 제한해 운영된다.

또한 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윤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중소기업 융자지원 등을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하는 데 힘쓰고, 전

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추진기로 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대책반을 가동해 농·축·수산물 등 중점점검 품목에 대해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행사도 소규모로 진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에도 대중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처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과 기동처리반을 운영기로 했다. 특히 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남천교, 오거리광장, 영화의거리, 걷고싶은거리, 전북대 구정문,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해 환경정비를 강화하고, 연휴 종료 후에는 일제정비를 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SNS 등을 활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야호 놀이터 메타버스 제작'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야호 아동정책참여단 12명과 가상세계 이해·역량 강화·의견 수렴

최근 3차원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야호 아동정책참여단이 노송광장 생태놀이터와 덕진공원 맘껏숯놀이터를 가상공간에 직접 조성해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 제페토에 등록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장에서 야호 아동정책참여단 12명과 함께 '야호 놀이터 메타버스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하는 세대가 될 아이들에게 가상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긍정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활용 역량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바라는 놀이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일 첫 활동을 시작한 야호 아동정책참여단은 네이버 제페토가 제공하는 빌드잇(Build It) 서비스를 활용해 노송광장 생태놀이터와 덕진공원 맘껏숯놀이터를 기반으로 자

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한 놀이터를 가상공간에 제작하게 된다. 네이버 제페토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가상공간 제작에는 전문강사가 가이드를 진행하며, 제작 활동은 4주간 진행된다. 이렇게 제작된 야호 놀이터는 네이버 제페토에 등록돼 시민들과 공유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아이들이 메타버스 세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 탄소중립 실천 '한뎛'

전주시와 탄소중립 업무협약 체결... 탄소중립 교육·1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 동참

전주시 어린이집들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한다.

전주시와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정근)는 지난 10일 전주시청에서 최명규 전주시청장과 이정근 전주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유아 시기부터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 속 탄소중립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탄소중립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1회용품 줄이기, 분리배출 생활화,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도록 힘쓰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건물의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전자기기 사용시 전력소비를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저탄소 인증제품 및 우리지역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등 소비단계에서 저탄소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힘



전주시와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0일 전주시청에서 최명규 전주시청장과 이정근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쓰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양 기관은 시민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근 회장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행동에 어린이집 연합회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

전만그루 정원도시를 조성 중인 전주시가 내년 열릴 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울 자문기구인 '2022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박병모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융합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화훼 전문가, 시의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기획총괄(4명) ▲진시사업(6명) ▲운영(4명)의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정원문화박람회의 정책 수립

과 총괄 진행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전주민의 차별화되고 정체성을 담은 정원도시 전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도 힘을 모으게 된다.

시는 정원문화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정원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